

군민 공감 먹거리정책 논의 가족과 함께 즐기는 생태탐험

진안군, 먹거리계획 정책 포럼 개최... 추진방향·공감대 형성·핵심 과제 제시

진안군은 지난 31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지역 먹거리에 관심 있는 군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의 먹거리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먹거리 먹거리계획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먹거리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별 발표시간으로 △진안군대 운영선 교수의 '식량위기 시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의의' △농림축산식품부 박순홍 사무관의 '중앙정부의 지역먹거리계획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박사의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간 연계 방안' △커뮤니티 링크협동조합 나영삼 대표의 '진안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핵심 전략 과제'가 소개됐다.

2부에서는 지역파트너플러스의 정천섭 대표를 좌장으로, 김명갑 진안군의 회 산업건설위원장, 송연자 진안군 푸드협회의 정책분과위원, 정영근 전북도청 로컬푸드팀장, 주요종 육천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해 지역 먹거리정책을 위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이상기후 및 전쟁에 따른 식량 수급제한 등과 같은 국제정세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피부로 와닿는 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 먹거리 기반권 보장 정책, 베이비부머 세대를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중소농 육성 정책



진안군은 지난 31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지역 먹거리에 관심 있는 군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의 먹거리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진안군 먹거리계획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등 우리 지역에 맞는 먹거리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읍내권 직매장 개설과 도시권 2호 직매장 신설, 공공급식을 통한 로컬푸드 소비시장 확대, 고향세 담배품 및 도시권 공공급식 납품을 통한 관계 시장 창출, 먹거리 정책의 실행을 위한 공공형 운영조직의 설립 등 먹거리 정책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함께 제시됐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 지역 중소농가에게는 공정한 소득을, 소비자에게 건 강한 밥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먹거리 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민의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길잡이로 삼고 먹거리 정책을 통해 진안군의 성공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 4월 진안군 먹거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올 연말까지 전 관련 조례 제정 및 먹거리 계획을 공포하고, 진안군 먹거리위원회 구성과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먹거리 정책 실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가족프로그램으로 1박2일 운영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에 가족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생태탐험 운영이 가족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는 행사가 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엄마 아빠와 1박 2일 반딧불이 생태탐험'은 지난 8월 27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모두 4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회차별 20가정이 참여한다. 반딧불 축제 기간 중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의 하나로 반딧불이의 생태 관찰과 무주의 깨끗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숙박 프로그램이다.

더구나 이 생태체험은 가족 참여자들(80가족)에게 태권도의 심지인 무주 태권도원에서 숙박하면서 태권도원을 가족단위로 자율 관람할 수 있는 특권도 부여했다.

이들은 태권도박물관을 비롯해 YAP 체험관과 모노레일을 탑승해 태권도원 전광대 관람을 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기도 했으며, 태권도원의 주요 시설들을 탐방하는 한편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첫날인 8월 27일 예체문화관 일



원에서 실시된 태권도시범공연에서 시범단원들의 능숙한 발차기와 격파 시범을 보이자 박수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태권도시범공연은 폐막날인 9월 4일에도 계속된다.

또 반딧불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체험했으며, 안성낙화놀이와 야경전시, 주제관, 반디랜드 등을 차례로 관람하면서 축제의 묘미를 마음껏 만끽했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육성팀 유성현 팀장은 "사실 반딧불축제가 모두 가족과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환경측 제지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추석 맞아 장수사랑상품권 개인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장수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장수사랑상품권 개인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군에 따르면 장수사랑상품권 지류형은 관내 농·축협, 장수신협, 무궁화신협(장계), 장수군산림조합, 새마을금고(장수, 산서, 장계), 우체국(장수, 장계) 등 19개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hak에서도 장수사랑상품권을 손쉽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특별판매 기간 동안 만 19세 이상 개인은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장수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단체와 법인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반딧불축제 기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일까지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성인문해교실 등 진행

무주군이 제26회 반딧불축제 기간을 활용해 관람객들을 위한 평생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축제가 열리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무주군평생교육원 강당에서 관람객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체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각 오전과 오후 시간을 나누어 진행된다. 관람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체험비는 무료이다.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은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를 비롯해 나무 손거울 만들기, 드론체험, VR, 키오스



크, 성인문해교실 등이다.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는 머그컵에 자신의 글씨와 그림을 넣을 수 있으며, 키오스 체험은 메뉴 주문이나 서류발급, 기차표 예매 등 기계사용 방법을 전문강사를 통해 터득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드론체험을 하는 관람객들은 강사와 함께 드론을 운전체험 하는

등 흥미로운 시간이 될 전망이다.

나무 손거울 만들기는 직접 색칠하며 꾸미는 작업으로 유치부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강당 내부에는 시화, 편지 등 그동안 평생교육원 성인문해교실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물이 전시돼 있으며 무주군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이미경 주무관은 "반딧불축제 기간 중 무주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무주군의 평생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5개 건축사, 건축물 해체 협약·지원 협력

진안군은 군수실에서 주민들이 건축물 해체하기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지원을 위해 관내 건축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을 맺은 건축사는 관내 위치한 명인 건축사사무소, 담쟁이 건축사사무소, 전주 건축사사무소, 아진 건축사사무소, 새날 건축사사무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3일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에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던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가 개정 후에는 '해체허가'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체신고'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건축사들은 군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전액 면제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기준 진안군 주민에 한해 주거용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50% 감경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안심식당 16개소 추가 지정

진안군은 위생과 시설관리가 우수한 음식점 16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은 △개인 접시, 국자 등 덜어 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실천과제를 실천하는 식당을 가리킨다.

진안군은 위생적인 식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4개의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0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업소는 진안읍 9개소(진안장터식당, 신집떡볶이, 요리조리&맛감참죽, 동해루, 소나무회관, 일미리금계찜닭 진안점, 진안한우전문점, 행복한밥상, 함흥냉면진안면옥), 용담면 5개소(대소해장국, 대박가든, 돼지마을식당, 정일품, 삼바위가든), 상전면 2개소(금강참봉어, 산들염니밥상)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진안군 민원봉사과(위생팀)로 연내에 신청하면 군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용담호 사진문화관 22번째 전시회 개최

진안 용담호 사진문화관(정천면 진용로 1911)은 9월 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22번째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 주제는 '꿈엔들 잊히리'로 지금은 용담호 안에 잠겨 있는 68개 마을들의 풍경을 담은 흑백사진 25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진안 용담호 사진문화관은 지난 2013년 개관한 이후 실형민에게는 위로를 관람객들에게는 실형민들의 희생을 감사함과 고향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꾸준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사진작가 이철수 씨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촬영한 흑백 필름 2만4,000여점과 당시 수물민의 삶의 흔적을 수집한 유물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상설전시관에는 사진 5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